

종합·해설

새정치공동선언→정책 발표→공동 가치·정책 제안→단일화 방식 제시

文 ‘4단계 로드맵’ 정치권 촉각

늦어도 12일에 단일화 틀 협상 착수해야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8일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경로와 관련, 4단계 로드맵을 제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후보단일화 로드맵은 ‘새정치 공동선언 발표→양 캠프 정책 발표→양 캠프의 공동 가치 및 정책 제시→단일화 방식 제시’로 집약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두 후보가 후보단일화에 굳건한 공감대를 이루고 후보 등록(25~26일) 이전에 단일후보 선출 작업을 원활하게 마무리하자는 것이다.

문 후보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 회의에서 “일단 공동선언이 빠른 시일 내에 잘 넘어가야 다음 단계인 단

일화 논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쪽의 정책발표가 끝나면 서로 공유하는 가치와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한 뒤 이어서 단일화 방식을 제시하는 게 적절한 간격 속에서 잘 이뤄져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측은 앞으로 2~3일내로 공동선언 발표를 끝낸 뒤 곧바로 단일화 방식을 논의하기 위한 ‘틀 협상’에 착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캠프의 정책발표가 공히 오는 11일로 예정된 만큼, 그 이전에 공동선언을 마무리 짓고 늦어도 12일에는 단일화 틀 논의를 위한 테이블이 가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 후보 측은 ‘은

도차’를 보이고 있어 문 후보의 로드맵대로 후보단일화 협상이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안 후보 측 핵심 관계자는 “일단 공동선언이 잘 풀려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며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들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과 합의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이후의 과정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동 선언에 담긴 내용의 폭과 범위에 따라 문 후보가 제시한 3단계인 ‘공동 가치 및 정책 제시’ 절차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안 후보 측은 공동선언 발표 시점을 정책 발표(11일) 이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회의적 분위기가 더하다.

공동 선언과 공동 정책 발표의 선 후관계와 시기를 미리 정해놓는다면 오히려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이다.

후보단일화 틀 협상 착수 시점에

대해서도 공동선언 발표 ‘직후’라고 미리 규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양측의 입장차는 ‘후보단일화 틀’에 대한 근본적인 쟁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문 후보 측에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 마음이 급한 반면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안 후보 측에서는 필수로 시간을 벌어야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후보단일화 협상에서 가장 핵심은 ‘단일화 틀’이 될 수 밖에 없다”며 “후보단일화 틀에서 가장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내는 한편 갈등을 최소화, 국민적 감동을 이끌어 내는 것이 양 캠프에 부여된 최대의 과제”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손잡은 문-안 실무진 대선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진영이 ‘새정치 공동선언’을 위한 실무협의를 착수했다. 문 후보 실무팀의 윤희호, 김현미 의원, 정해구 새로운정치위원회 간사, 안 후보 실무팀의 김성식 공동선거대책본부장, 김민진 경희대 교수, 심지연 경남대 교수(왼쪽부터)가 8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인포커피 창비에서 가진 회의에서 취재진을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문-안 단일화 가교역 김효석 전 의원의 충고

“민주 중도층 겨안을 과감한 쇄신 있어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후보단일화 합의에 보이지 않는 가교 역할을 했던 김효석 전 국회의원이 후보단일화의 성공과 정권 창출을 위해 민주당에 환골탈태 수준의 과감한 쇄신을 요구, 주목받고 있다.

김 전 의원은 8일 “후보단일화를 이루고 정권 창출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정책과 노선 측면에서 중원을 품을 수 있는 과감한 쇄신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뒤 “진보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유연한 정책 제시 등을 통해 진보와 중도는 물론 중도 보수까지 품을 수 있는 ‘큰 그릇’이 돼야 정권 창출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야권의 말썽 격인 민주당 측에서 인적 쇄신을 넘어 스스로 기득권을 버리는 자세를 보이면서 후보단일화에 담을 수 있는 감동의 가치를 최대한 넓히고 이말 세력의 최소화를 이끌어야 한다”며 “이는 자연스럽게 수구 보수 세력을 고립시키게 될 것이며 제3기 민주정부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새정치 공동선언 이

후, 대국민 약속을 통한 공동 정책 합의를 이뤄, 실질적인 국민연대를 실현시켜야 한다”며 “일각에서는 회의적인 의견도 제시하고 있지만 두 후보의 인성과 자질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후보단일화를 앞두고 호남 민심은 결국 어느 후보가 시대적 정신에 충실하고 희생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최종 지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이번 후보단일화는 국민적 연대와 시대 정신의 공유가 전제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야권 모두가 낮고 겸허한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 ICT부 신설...해수부 부활

정부 부처 15부→18부 확대 개편 공약 검토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가 정부 조직을 현행 15개 부에서 18개 부로 3개 부처를 늘리는 방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박 후보의 경제공약인 창조경제론을 뒷받침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방송통신(ICT) 산업 육성을 위한 ICT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이 골자다. 육동석 당 정부개혁추진단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노무현 정부 때 18개 부처가 이명박 정부 때 15개 부처로 줄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해양수산 분야의 전문성이 약화했다”면서 “이들 분야의 전담부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러한 정부개편안을 보고받고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종전의 해양수산 업무에 더해 해양자원 개발까지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은 전국민적인 관심 사항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표심을 흔들 수 있는 예민한 이슈다.

/이종형기자 golee@연합뉴스

‘안철수 양보론’ ‘신당 창당설’ 등 거론

안, 민주 ‘언론플레이’ 유감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측은 8일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 회동 이후 ‘안철수 양보론’, ‘신당 창당설’ 등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민주당 측이 ‘언론플레이’를 한 것으로 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안 후보 측 유인영 대변인은 이날 공평동 캠프 브리핑에서 “두 분 회동 당시 상황이나 합의에 관해 사실이 아닌 내용이 민주당 발표(發)로 보도되고 있다”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의 조광희 비서실장도 이날 문 후보의 노영민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통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후보 측의 이런 비판은 “안 후보가 양보하고 차기를 노릴 것”, “단독 회동에서 안 후보가 신당 창당을 거론했다” 등 사실이 아닌 내용이 민주당 관계자를 출처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데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안 후보는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독 회동에서 신당 창당 발언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안 했는데 누가 하죠”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에 대해 문 후보 측은 “우리 쪽에서 신당창당론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선대위의 우상호 공보단장은 이날 영등포 민주당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유인영 대변인이 ‘신당 창당론을 문 후보 캠프에서 지속적으로 흘리고 있어서 문제라고 지적하고 합의 정신을 위배한 문제’라고 발표했는데 저도, 진성준 대변인도 신당 창당 가능성은 없다고 했고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쓰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린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신당창당론을 확대 재생산했다는 것은 오해한 것 같다”며 “안 후보 캠프가 왜 이런 오해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문 후보 공보실은 하루종일 신당창당론은 사실 아니라고 주장해왔기에 오해 없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박광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신당창당론이 어느 쪽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그러나 그것이 서로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재계 자발적 경제개혁 촉구

안철수, 전경련 회장단 만나...남북정상 핫라인 개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는 8일 재계를 대표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장단의 면전에서 경제민주화를 위한 자발적 개혁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대선후보로는 처음으로 이날 오전 여의도 KT사옥 19층 전경련 사무실을 방문해 회장단과 면담했다.

안 후보는 이 자리에서 “전경련에서 정치권의 안(案)에 대해 반대사만 표하기보다 스스로 개혁안을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재계의 반대와 걱정은 이해하고 있지만 분배 뜻은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라고 설명한 후 “현재 정치권과 검찰에서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스스로 개혁안을 내놓고 있다”고 압박했다.

모두발언 이후 5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 후보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김윤 삼양사 회장은 “분위기가 좋았다. 만족스럽다”고 말했다고, 대림그룹 이준용 명예회장은 “사람 좋네요”라고 했

다.

안 후보는 또 이날 공평동 캠프에서 남북한 정상 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남북 간 상설 분쟁해결 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6자 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미·중 간 4자포럼 개설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 및 외교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해 남북 정상 간 핫라인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협상하는 등 남북대화를 재개할 방침이다.

또 북방한계선(NLL) 등을 둘러싼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남측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북측 서남전선사령부 간의 직통전화선을 개설하고, 상설 분쟁해결기구로서 남북분쟁해결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지원과 보건의료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는 등 종합적인 북한인권 개선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부동산 거래, 유통화 자산매각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062-236-3400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5879-0005	추천 물건 상담전화 010-8227-7759
충장로 [5층백화점] 대2708㎡, 건18171㎡ 감정가 310억 최저가 130억	북구 대촌동[2층공점] > 대지 1506평 > 건물 1031평 > 감정가 39억8천 > 매매가 25억5천
속박시설 [치병동] 대704㎡, 건2042㎡ 감정가 32억 최저가 22억	화정동 [예식장] > 대지 330평 > 건물 1357평 > 감정가 41억5천 > 매매가 20억(협의후결정)
소태동 [독서실] 대561㎡, 건1439㎡ 감정가 12억4천 최저가 6억9천	군산 [바이오에너지공점] > 대지 3025평 > 건물597평 > 감정가 99억4천 > 매매가 38억 (협의후결정)
신안입해 [최적, 판매시설] 대4706㎡, 건1123㎡ 감정가 18억 최저가 10억	영암 [노인병원] > 대지 2878평 > 건물 2209평 > 감정가 95억2천 > 매매가 27억3천
전북김제 [물류센터] 대8076㎡, 건25004㎡ 감정가 25억 최저가 8억	목포 상동[속박시설] 대170평 건544㎡ 감정가18억6천 최저가13억1천
전주서덕진구[유흥주점] 대665㎡, 건988㎡ 감정가 11억4천 최저가 5억4천	무안 망운[속박시설] 대257평 건346㎡ 감정가11억 최저가6억2천
화순이양 [공장] 대6536㎡, 건2056㎡ 감정가 9억8천 최저가 2억8천	화순 도곡[무인텔] 대1904㎡, 건2,262㎡ 감정가 26억7천 최저가 18억7천
보성읍 [상가] 대685㎡, 건763㎡ 감정가 7억2천 최저가 1억5천	광산구 신항동[대지] 대150평 감정가18억7천 최저가6억1천
충장로 [근린주택] 대215㎡, 건306㎡ 감정가 4억6천 최저가 2억	나주중앙동[근린상가] 대330평 건480㎡ 감정가23억1천 최저가16억2천
목포대양동 [수양관] 대1786㎡, 건408㎡ 감정가 4억8천 최저가 1억7천	서구 치평동[속박시설] 대213평 건617㎡ 감정가132억 최저가22억4천
임대 및 매매 김수희 공인중개사 010-8567-4600	광산구 월계동[상가] 대135평 건81㎡ 감정가16억3천 최저가3억6천
▶ 주식회사 에셋코리아는 2006년부터 경매진행중이거나 유입한 부실자산(NPL)을 유통화회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거나 매각하고 있습니다. (▶ 함께할 운영자 및 회원을 모집합니다 상담 : 010-8227-7759) ▶ 병원, 공장, 예식장, 빌딩, 토지, 호텔 등 대형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시면 에셋코리아와 상의하십시오	광산구 용동[공점] 대400평 건215㎡ 감정가47억 최저가3억3천

❖ 기타 소액 물건 및 아파트, 대지, 공장, 특수 물건 상담 환영합니다 ❖ 전화주십시오

사정상 · 급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사무실전용)

- 20층 건물 중 20층 코너, 100평
- 3면이 통유리로 전망 좋음
- 주차 5대 무료, 대형주차장
- 실내인테리어 2000만원 소요
- 용자 8천만원 ~ 1억원 정도 가능
- 현, 보 2천만원에 월 150만원 임대중
- 급매가 2억 2천만원(시세 4억 5천만원)
- 일시불 매매시 조정가능

문의 : 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선수금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